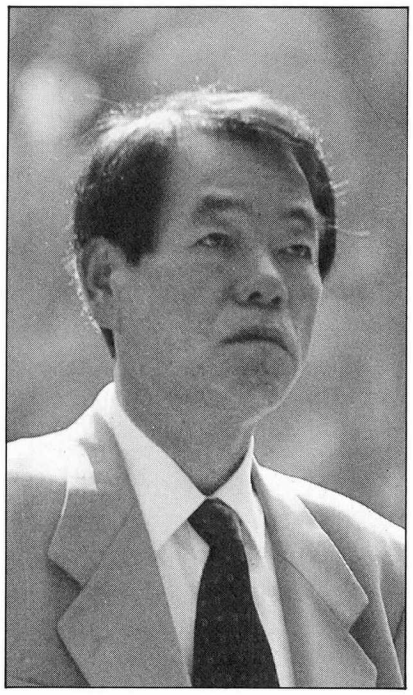
이 책 그 사람 ▶



중소기업인의 좌절과 재기의 기록

《부러진 날개로 다시 날다》 펴낸 이원출씨

언제부턴가 '중소기업'하면 '부도'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제조업체의 99%, 제조업 고용의 6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왜 그렇게 부도를 내고, 또 부도나기 쉬운 중소기업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지는 잘모른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남전한방직유한공사'라는 다소 긴 이름의 중소기업 사장인 이원출씨(55)는 지난 92년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애선(愛船)과 함께 좌초'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가 이번에 펴낸 《부러진 날개로 다시 날다》(제삼기획)는 기업경영에 얽힌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마음이 아파서 지른 비명입니다. 책에 담긴 사연들은 제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사장의 책에는 그가 사업에 뛰어든 사연, 부도를 전후한 상황, 극복을 위한 몸부림 등이 실감나게 담겨 있다. 이 책을 읽으면 '부도'라는 것이 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과 배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다.

"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은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문을 닫는 기업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도의 순간 바로 기업주를 '전과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패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원출씨도 처음 부도가 났을 때 '도망가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를 붙잡은 건 자기의 인생과 동일시할 만한 기업에 대한 애정과 병석에서 싸우고 있는 아들이었다.

이 책은 부도의 문제를 삶을 축으로 한 일기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 생동감이 느껴진다.

"물질적인 문제보다 젊은 날 열정의 대가로 쌓아올린 회사와 개인의 자존심이 사라진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사회가 안고 있는 '중소기업 부도'라는 심각한 현상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허 연 기자

이 책 그 사람 ▶

살아있는 우리의 불교미술 문화 탐구

《한국불교미술사》 펴낸 김영주씨

우리 미술사를 따라가면서 우리 민족의 탁월한 예술성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김영주씨(51, 서강대 강사)가 최근 《한국불교미술사》(솔)를 펴냈다. 스스로 매료된 우리 미술의 '보고(寶庫)' 안으로 일반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싶었다는 김영주씨는 전문적인 지식을 나열하거나 현학적인 평론에 치우치지 않는다. 저자의 감성이 살아 있는 문체, 쉬운 서술을 통해 읽는 이의 상상력과 창조적 사유를 책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지나치게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태도나 기술방식에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예술사 연구는 단지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학문적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서와 감성 안에 꾸준히 실재하고 있는 예술정신이나 미학을 느끼고 탐구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고대 삼국시기부터 불교미술이 최고조에 달했던 고려시대까지 미술의 흐름과 시대별 특징을 통사적으로 살핀다.

지금까지 출간된 대부분의 불교미술사 책들이 불교교류사의 측면이나 작품의 역사적 의의, 형식적 특징 등을 분석하는 데 치우쳤다면 이 책은 확장된 시각으로 미술사를 파악한다.

한 시대의 사회상황과 지배적인 사상, 특히 창작계층의 처지와 예술정신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가령, 지금까지 고려시대 예술의 특징을 귀족적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는 지배계층의 감수성으로 파악한 것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실제 미술작품의 창작자인 민중들에게는 전란이 끊이지 않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아픔이 극도의 탐미주의로 빠져들게 했고, 그 안에서 마치 상처입은 영혼이 빚은 듯한 '비애'와 '우수'를 엿보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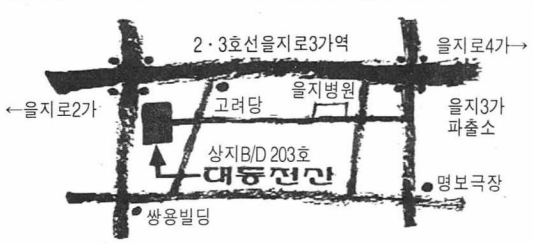
자신을 험하게 단련시킨 것이 남편 김지하씨의 유일한 외조였다고 말하는 김영주씨는 공부하는 일이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길이었다고 고백한다. 《신기론으로 본 한국미술사》를 다시 손보는 일이 그의 계획이다.

——박남정 기자

아 래 아 한 글 (IBM PC) 출 력 센 타

F1 필름, 인화지, 레이저 프린트 출력
F2 PC로 작업한 데이터 편집출력
F3 입력, 편집대행, 교육지원
F4 다양한서체, 최대한자 및 고어지원
F5 MS-WORD, 훈민정음 등

신속 • 정확
(일본어 조판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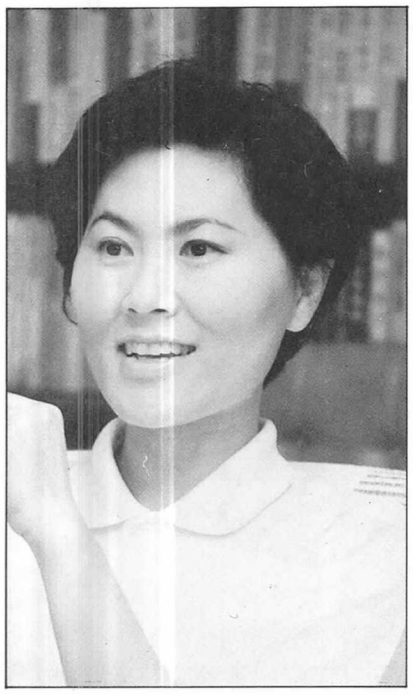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B/D 203호
전화번호 : 275-0196~7,
265-9271 275-7143
팩 스 : 275-7145 천리안 · 하이텔 : SOGO0318
♣ 전철 2 · 3호선 을지로3가역 을지병원출구

— 24시간출력 기다리겠습니다!

대동전산

"좋은 출력 좋은 책!"



이 사람의 아름다운 세계여행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펴낸 한비야씨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동지역의 오지를 4년 동안이나 여행하고 돌아와 《바람의 딸, 걸어서…》(금토)를 펴낸 한비야씨(38, 본명 한인숙)의 여행은 남다르다. 일상이 지겨워서 어느날 즉흥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돈 많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한가함을 즐기기 위해 시작한 것도 아니다.

"세계여행은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도 착실하게 했습니다."

2천5백만원의 경비, 킬리만자로도 거뜬히 정복할 만한 체력,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도 자신을 믿고 채용해줄 경력을 쌓는데 걸린 시간은 꼭 3년. 한비야씨는 부장 승진을 앞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계 국제 홍보회사에 미련없이 사표를 던지고 길을 떠났다. 가진 것이라고는 어떤 극한 오지에서도 식사, 잠자리까지 그들식으로 하리라는 열린 마음과 재수시절 얻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었다.

세계를 누비며 한비야씨는 이란 반정부지도자와 만나 열흘간의 안타까운 사랑을 나누었고, 전쟁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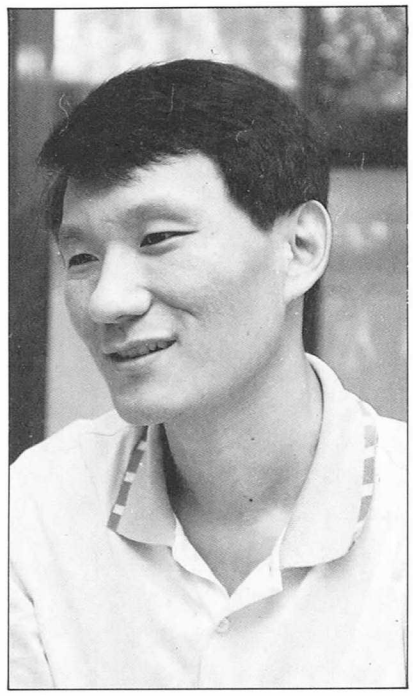
"세계곳곳의 오지를 돌아다니며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예요. 나라·인종·언어는 다르지만 사람은 다 같다는 것과 소박한 삶의 가치입니다."

전쟁 중에 매설해 놓은 지뢰에 다쳐 팔다리를 잃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꼬마 아이가 건네 준 빵 한 조각은 한비야씨에게 모든 인간에 대한 긍정을 심어 주었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물' 만이 소원인 아프리카인들에게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욕심내며 사는지 깨닫게 되었다.

남들보다 어렵게 들어갔지만, 다달이 생활비까지 받는 특별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타주립대학에서 국제홍보학 석사까지 받은 한비야씨는 지금 재산도, 지위도 없다. 하지만 한비야씨는 행복하다. 꿈꾸었던 걸 이뤘기 때문이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남루해 보일지라도 모든 이의 꿈은 아름답습니다."

——이현주 기자



삶이 있는 들꽃이야기

《메밀꽃이 피면 사랑도 깊어간다》 펴낸 이상권씨

이상권씨(32, 소설가)는 매일 아침 산을 찾는다. 운동삼아 하는 하루의 시작인데 들꽃관찰도 빼놓을 수 없는 산행 목적 가운데 하나다. 《메밀꽃이 피면 사랑도 깊어간다》(푸른나무)를 끝으로 완간한 〈삶이 있는 꽃이야기〉 시리즈에 들어간 사진도 절반 넘게 북한산에서 찍었다.

삼년 전, 들꽃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북한산 아랫자락으로 집을 옮겼다.

"국립공원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공짜로 드나듭니다."

이상권씨의 은근한 동네 자랑이다.

어릴 적 꼴을 베러 다니며 동무들과 뛰놀며 체득한 들꽃의 사연을 정리하게 된 계기는 소설쓰기였다. 소설 습작 때 개망초꽃과 달개비꽃을 혼동했다. 그 뒤 유년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관계문헌을 참고해 틈틈이 적어나간 메모가 세권의 꽃이야기로 열매를 맺었다.

다른 꽃이야기와 〈삶이 있는 꽃이야기〉 시리즈의 차이점으로 꽃을 인간의 삶에 결부시킨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개량종이나 꽃꽂이 같은 자연성을 훼손하는 시도는 마뜩찮다. 꽃은 "생명체의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극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마는 순을 놓아 번식한다. 고구마도 원래는 꽃을 피웠는데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꽃피는 순결을 잃어버렸다. 순을 틔우고 남은 고구마 종자를 구강이라 한다. 양분이 빠져나간 구강은 맛이 없을 수밖에. 가난한 시절에는 구강도 사카린을 넣고 쪄먹었다. 재미없는 사람을 일컬어 "으이구, 맛대가리 없는 구강 같은 사람"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다.

장다리꽃이 무꽃인 사실도 '서울내기'에게는 그대로 지식이 된다. 이런 지식은 무잎과 줄기를 이르는 '무청', 무장다리 어린 대를 말하는 '무종', 못생긴 여자를 빗댄 '무쪽 같다'는 표현으로 이어진다.

"어려서는 황매화를 좋아했습니다. 조금 커서는 집 뒤란에 가득 핀 노란색 보라색 붓꽃에 흠뻑 빠졌습니다. 요즘은 10월에 잎과 잎 사이에서 피는 용담을 가장 좋아합니다."

세월이 변함에 따라 좋아하는 꽃도 변하는가 보다.

——최성일 기자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TOTALILLUSTRATION CO.
포인트앤라인
일러스트레이션 · 디자인전문회사

POINT-LINE

포인트·라인 은 픽쳐북·스토리북·표지일러스트와 커렌다·카드·참고서·교과서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 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입체 일러스트나 수채화,유화,지점토,모래 그림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 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들대상의 출판과 아동출판기획을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

Tel:(대) 02-3492-0091~2 Fax:02-3493-0192 전화주시면 포토폴리오를 갖고서 찾아뵙겠습니다